

“다양한 관광정책 적극 추진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 “무주방문의 해 추진성과 미약... 위케이션 등 활용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사진)이 2024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사계절 꾸준한 방문객이 이어지도록 비수기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인구 대응과 디지털관광증, 위케이션 등 다양한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2024 무주방문의 해 추진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문은영 의원은 “올해 무주군 방문객 수가 작년보다 1.9% 증가한 데 그쳐 무주방문의 해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무주를 방문하는 분들은 주로 대전, 전북, 영동군 등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홍보정책도 필요하다”며 “인터넷이나 SNS상 무주군 언급량에 따라 방문객 수가 비례하는 만큼 비수기 집중홍보로 사계절 고른 방문객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의원은 이어 디지털관광증민증과 위케이션에 관한 무주군의 관심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의원은 “디지털관광증은 한국관광공사

가 운영하는 대한민국구석구석에서 3분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해당지역에 관광하러 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산골영화제 등 중요한 홍보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전북지역 위케이션 참가자 1,008명 가운데 무주에서 지낸 분이 220명이고 이분들이 무주에서 지출한 금액은 2억7100만원 정도로 매우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도 무주군이 구체적인 위케이션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과 휴식을 위해 잠시 머무를 장소를 찾는 위케이션 참가자들을 적극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기업 활성화 주력

중소기업 워크숍 개최

무주군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기관·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입지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마케팅통상본부와 현장지원팀 관계자 등도 지리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진흥원 한동희 본부장은 △중소기업 자금 판로 수출 등 기업 지원 내용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으며 한승경 팀장은 △중소기업종합지



원시스템 및 2024년 하반기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농공단지협회 이득주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에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나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그리고 정보가 공유된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 전했다.

무주군에는 현재 39곳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입지 기업이 운영 중으로, 무주군은 입주 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업은 우리 군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자 기업들에게 있어 군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반일 것”이라며 “군에서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한 지원과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 확산을 통해 무주에 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로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장수군이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2회 장수 쿨밸리(cool valley) 페스티벌은 오는 8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번암면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보고회에는 최훈식 군수의 주재로 각 실·과·소 부서장이 참석해 축제 프로그램 구성부터 교통, 안전, 먹거리까지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새로워진 축제 추진 방향이 눈

길을 끈다. 지난해 휴식과 힐링을 위주로 추진됐던 축제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콘텐츠 도입으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대형물장을 선보이는 ‘쿨밸리 워터파크’ △개막식 당일 계곡 위 특별한 ‘나화놀이’ △EDM DJ와 물대포가 결합된 ‘쿨밸리 밸리밤’ 공연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러한 컬러콘텐츠들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는 만큼,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수증 체험 등도 추진

/장수=고관호 기자



해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쿨밸리 페스티벌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쿨밸리 페스티벌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17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들과 ‘여성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여성 일하기 좋은 무주 만든다

무주군, 여성친화일촌기업 7곳과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지역 내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들과 ‘여성일자리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7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정희 원장을 비롯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럼 박미란 대표, 무주군가족센터 정성철 센터장,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이흥교 관장,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김도현 관장과 농업회사법인 무주 반디팜 주식회사 소현주 대표, 반디누리작업장 남궁용 원장, 그리고 래미에프앤비 이선희 인사 담당 등 2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문화적 환경구축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여성친화일촌기업 우선지원 혜택 등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팀 최정철 팀장이 진행하는 2024년 정부일자리지원 사업 설명을 들었다. 또 노무법인 한

걸 강호석 노무사로부터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컨설팅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지역 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 기관은 물론, 기업들과 공조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기쁘다”며 “오늘을 계기로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 경력 단절 예방과 고용유지 등의 필요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주군 여성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친화일촌기업들과 업무협약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무주군에는 현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럼’ 등 올해 새롭게 참여한 업체 7곳을 포함해 총 15곳이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며 이들에게는 전라북도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지원하는 △여성인재 우선 연계,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환경개선, △기업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서, 상습 물품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최근 “상품권 및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가로첸 A모(41, 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 소재 숙박업소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또는 맘카페 등에 물품 판매 허위글을 게시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6회에 걸쳐 약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남기재 무주경찰서장은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 되면서 인터넷 물품 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더욱 교묘해지

고 전문화돼 가는 추세로, 특히 외국계좌이거나 소핑몰보다 20~30%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물품거래시에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 물품을 받아 확인한 후 결재를 진행하고 경찰청 ‘사이버킵’ 앱을 이용하여 판매자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의 범위 이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사기 피해 발생시에는 사이버범죄센터(http://www.ctrc.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검거활동에도 신속을 기하여 피해 예방 및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제13회 진안홍삼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료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제13회 진안홍삼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5일~16일까지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3개 부(남북·여북·혼복)에 준자강(연령제한 없음)을 비롯해 연령에 따라 20·30, 40, 45, 50대팀과 실력에 따라 A~D급으로 나누어 치러졌으며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 800여 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대회 결과 준자강 부문 우승은 경기도 린투AOB(장준호·박세훈)에게 돌아갔다. 남자 복식 연령별 A급 우승은 20·30대 전주 불수(서승현·이정빈), 40대 익산 모라(조인행·오현용), 45대 대전 서구(임원철·남준), 50대 전주 동안(최강일·박현태)이 차지했다. 여자 복식 연령별 A급 우승은 20·30대 경기도 린투AOB(정유나·최유린), 40대 전주 화요결스(고은경·심민하), 50대 전주 팀스(김명하·이진옥)에게 돌아갔다. 또 혼성복식 45대 A급 우승은 통영시 샌크라(공일현·남옥경)가 차지했다.

개최자인 진안군 참가 선수들 중에서도 성준영·강호길 팀이 준우승(남북 45대 D2급), 방재주·김미현 팀이 준우승(혼복 45대 C급), 송민우·김도훈 팀이 3위(남북 20·30대 D급)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배 전북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성료

2024년 진안홍삼배 전북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지난 2일과 15~16일까지 다목적 테니스장 등 5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선수 및 임원 등 관계자를 포함하여 600여 명이 참가해 사활을 겨루었다.

대회는 여자 2점과 남자 5점, 12점 페어부 총 3개부로 치러졌으며 여자 2점부는 장주희(전주위더)·성미선(고창일요), 남자 5점부는 황진현·이승철(전주대봉), 남자 12점부는 김필수(남원광한투)·임진섭(전주대봉)이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진안클럽에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도 이광철(남자 5점 부), 설창국·김주호(남자 12점 부)가 공동 3위에 입상하며 선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